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배경

이스라엘의 메시아의 몸 공동체는 한 마음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롬 11:26)"는 말씀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 부흥이 약속되고 예정되어 있다는 사상은 급진적인 개념입니다. 이 사상은 한 구절에 근거하기에는, 그것도 사도 바울(사울)로부터 오기에는 너무도 급진적입니다. 이는 틀림없이 성경을 관통하여 발전된 원칙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일찍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계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1 장에서 그렇게 담대한 진술을 하게 된 것은 성경적 근거를 가진 권위 있는 예언에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사 45:17 –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사 45:25 –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찬양하리라

사 46:13 –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에 구원을 베풀리라

사 60:21 –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이 마지막 구절은 모든 의로운 유대인이 영원한 구원을 받으리라는 랍비들의 가르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가올 세상의 일부가 되는 것은 "그리고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될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 마섹헤트 아보트(Masekhet Avot) 1:1. 이사야의 예언들을 영원한 민족적 구원으로 해석하는 것은, 분명히 적용이 다르기는 하지만, 신약성경과 탈무드/미쉬나에서도 일관됩니다.

다른 선지자들, 특히 예레미야도 이사야의 관점을 계승하고 있고, 이는 로마서에 나타난 바울의 계시를 위한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렘 23:6 –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렘 30:7 – 그 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뱀을 얻으리로다

렘 31:7 – 여호와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시도다

렘 33:16 – 그 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이 구절들의 문맥상 메시아 왕과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새 언약을 묘사하는 예언들입니다. 예레미야서의 앞부분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뒷부분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바로 그 가운데는 시적이고 예언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레미야 30-33 장은 바울 역시 이스라엘의 회복을 주제로 논의를 펼쳤던 로마서 9-11 장에 상응합니다.

예레미야 31:7 은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다시 살아날 때는 큰 환난 동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는 것과 마지막 환난의 때는 동시대입니다. 다른 선지자들도 똑 같은 통찰을 이어받으면서 마지막 환난의 때를 배경으로 한 이스라엘의 부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단 12:1 –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그 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 때에 네 백성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욥 2:31-32 –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 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속 12:7 –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 있을 민족적 부흥에 대한 비전은 이스라엘의 후기 선지자들 전체에 걸쳐 확립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상에 대한 성경적 권위의 뿌리는 토라에 기록된 모세의 예언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신 33:29 –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으로다 여호와와 구원을 너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것이 단지 로마서에만 딱 한 번 나타난 구절이었다면 저희가 그렇게까지 강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마지막 환난 때의 이스라엘의 회복과 남은 자와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토라에서부터 신약성경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주요 주제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단 핀토(Don Finto)

저는 너무 자기 중심적이 된 것을 다시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그 때 저는 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저희를 불러 맡기신 임무에 적합하지 않음에 대해 주님께 말씀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겸손한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것이었고 자기 중심적인 것은 언제나 덧이 됩니다.

우리에게 "네 눈을 네 자신의 부적합함이나 실패에 고정하고 주님께 그것에 대해 말하라"고 명하는 성경구절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은사나 능력에 기대라고 격려하는 성경구절도 없습니다.

그보다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히 12:1-3)**"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요 또 완성시키실 분입니다.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다음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이란 정상 회의

금주에 테헤란에서 있었던 비동맹 국가들의 정상회의에는 이집트의 새로 선출된 모르시(Morsi) 대통령과 팔레스타인 압바스(Abbas) 수반이 참석했습니다. 이 회의의 연설자들은 또 다시 이스라엘의 멸절을 외쳤기 때문에 모르시 대통령과 압바스 수반이 참석했다는 사실은 현재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사이에 체결되어 있는 평화협정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특히 실망스러운 것은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이란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멸절에 대한 이란의 선언을 비난하기는 했지만, 그의 참석 자체로 그들에게 신임과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 된 것입니다. UN 과 이슬람 지하드 간의 협력은 지극히 위험한 것입니다.

같은 주에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서방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점진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사실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포르도(Fordo) 원자력발전소의 원심분리기 수가 5 월 1,064 개에서 8 월 2,140 개로, 3 개월 만에 2 배 이상이 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마지막 때에 열방이 예루살렘에 대하여 끔찍한 공격을 함으로 절정에 이를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슥 14:2). UN 은 정부간의 국제적 협력의 수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지하드는 그러한 공격에 동기 부여할 종교적 광신 이데올로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모여드는 사탄적 세력이 분열하여 무너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눅 11:17).

9 월 유튜브 동영상 강의

제목: 영광의 왕

설명: 예수아께서는 세상을 단지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강의에서 아세르는 구원자와 왕 되신 예수아의 이중 정체성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펴고 여러분이 예수아의 왕국에 대한 이해를 바꾸게 될 메시지를 받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www.youtube.com/user/ReviveIsraelTV 하고 스크롤을 내려서 **영광의 왕(King of Glory)**을 찾으십시오.